

잠이 안와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 글이 수능 영어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수능 영어영역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중간에 쓰다가 컴퓨터가 맛이 가버려서 조금 짧아진 감이 있는 듯 합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얼만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기출 문제는 **복잡성이 증가한다.**

27. When faced with things that are too big to sense, we comprehend them by _____. The first appearance of a shining star in a darkening evening sky can take you out into the universe if you combine what you see with the twin facts that the star is merely one of the closest of the galaxy's 200 billion stars and that its light began traveling decades ago. The smell of gasoline going into a car's tank during a refueling stop, when combined with the fact that each day nearly a billion gallons of crude oil are refined and used in the United States, can allow our imagination to spread outward into the vast global network of energy trade and politics. [3점]

* crude oil: 원유

- ① establishing the local network
- ② understanding the energy policy of a nation
- ③ comparing the universe with human beings
- ④ associating the objects with their names
- ⑤ adding knowledge to the experience

27.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the common ancestor of Neanderthals and modern people, living about 400,000 years ago, may have already been using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If language is based on genes and is the key to cultural evolution, and Neanderthals had language, then why did the Neanderthal toolkit show so little cultural change? Moreover, genes would undoubtedly have changed during the human revolution after 200,000 years ago, but more in response to new habits than as causes of them. At an earlier date, cooking selected mutations for smaller guts and mouths, rather than vice versa. At a later date, milk drinking selected for mutations for retaining lactose digestion into adulthood in people of western European and East African descent. _____

The appeal to a genetic change driving evolution gets gene-culture co-evolution backwards; it is a top-down explanation for a bottom-up process. [3점]

- ① Genetic evolution is the mother of new habits
- ② Every gene is the architect of its own mutation
- ③ The cultural horse comes before the genetic cart
- ④ The linguistic shovel paves the way for a cultural road
- ⑤ When the cultural cat is away, the genetic mice will play

<09년도 기출입니다>

<13년도 기출입니다>

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3점+같은 유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보다 후자가 지문 길이 및 어휘에서 더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도순으로 기출 문제를 푸실 경우는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즉 하드 트레이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되는지, 어디부터 풀어야 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기출 문제 공부 목적의 1순위는 '독해력'이다.

수능 영어영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평가하는 시험일까요?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해를 정확하게(그리고 빠르게)하는 법'입니다.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정확하고(그리고 빠른) 독해를 1순위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부분을 1순위로 잡고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공부할 예정의 학생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1순위로 잡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3. 독해력만 얻어가서는 안된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로 독해력을 키운다면,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나 EBS로 독해력을 키워도 되지 않나요? 왜 기출 문제를 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언어, 수리, 탐구는 왜 기출을 보나요?

언어, 수리, 탐구(지금의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기출의 문제 풀이와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혹은 응용 되어서 다음 수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어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이유의 1순위는 독해력 점검+향상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이**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바인지 반드시 이 점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하위권 학생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1순위에 비중을 많이 두고 기출 문제를 공부해주세요.

4. 공부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기출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풀어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목적이 '독해력+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이기 때문에

하위권이라면 07~08 평가원+수능부터 순차적으로

상위권이라면 10수능부터 순차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을 재지 말고 한 지문 한 지문 정성스럽게(?) 정독하시면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푸시면서 위에 말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등급컷을 결정짓는 멘붕의 요소는 무엇인가.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11 수능 시간재고 푼 현역인데 97 맞았어요 이게 왜 1컷 90이죠?" 제가 생각하는 영어영역 등급컷의 변수들은

1> 수능 시험 특유의 긴장감

2> 앞 시험(국어 수학)의 난이도

3>킬러 문제의 난이도

입니다. 1번은 모든 과목에 해당되고 2번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3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수학 영역의 등급컷은 킬러 문제들보다는 '문항의 배치'가 차지하는 바가 큼니다. 하지만 영어 영역은 이와 다릅니다. 좋은 예로 11수능과 13수능의 등급컷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유사했지만 11 수능의 킬러문제(3점짜리 문제들)의 정답률이 13 수능의 문제들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BS 반영이 되면서 일반 문항의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시험이라면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이런 킬러 문제들을 공부할 때,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6. 기출 학습의 간단한 방법.

시중 구문서나 강의를 통해 얻은 구문서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1) 문제를 푼다

->기출 문제집의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 때 '정확히 독해를 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2) 모르는 구문은 형광펜하면서 공부/ 모르는 어휘 체크

->감으로 알 수 있는 어휘가 있겠지만 학습의 과정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구문은 형광펜으로 칠하여 해설강의나 시중/인강 구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 푸는 방법론의 설계

이 부분은 고난도 유형에만 해당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시 '이렇게 대처하자' 혹은 '이런 과정으로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정리 혹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1과 2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